조선의 역사를 만든 인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을 걷다

홍미숙 지음

역사를 소재로 한 가장 많은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조선'이다. 영화, 드라마, 책을 통해 다양하게 다뤄왔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다.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동성, 오늘의 역사와의 근접성 등에서 다른 소재와 차별성을 지닌다.

조선을 모티브로 한 가장 많은 콘텐츠는 책으로 묶여진다. 인문, 교양, 여행 등 다채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조선은 상상력과 재미를 선사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만큼, 역사와 관련된 공간이나 문화재는 직접 보지 않고는 온전히 시대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탐구와 재구성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인물을 매개로 한 생가, 은거지, 유배지, 사당 등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매개체다.

물론 상당부분 조선의 역사가 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조명됐다. 왕조시대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왕보다는 다른 위치에서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갔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는 시대다.

'조선을 걷다'는 조선의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과 공간을 다룬 책이다. '걷다'는 표현에는 일일이 답사를 하며 관련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조선이 버린 왕비들', '왕을 낳은 칠궁의 후궁들'의 홍미숙 씨로 책은 현장 답사를 한데 엮은 결과물이다.

"조선을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걸을수록 가슴은 더 벅차올랐다. 그동안 조선의 5대 궁궐은 물론,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왕과 왕비, 후궁·왕자·공주·세자·세자빈·세존 등이 잠들어 있는 능·원·묘를 심심하면 찾아갔다."

1장에서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과 이순신 이야기가 중심 테마다. 저자는 태조의 시조와 후손을 만난 이야기를 비롯해 개국에 헌신했지만 얼마 후 살해된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을 담은 전주 경기전(慶基殿)에서 태조의 어진을 마주하고 이어 어진박물관으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영조를 비롯해 정조, 순조 등의 어진을 만날 수 있다.

이순신이 태어난 곳은 서울이다. 어린시절을 서울에서 보내고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활쏘기 등 무예 연습을 하면서 꿈을 키웠다. 아산을 떠난 때는 그가 무관에 합격한 후다.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여수 진남관은 당시 75칸의 거대한 관아였다. 현재 보수작업 중인 진남관의 해체 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저자의 발길은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여수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6년을 머물며 절치부심 국난 극보을 위해 매진했다. 여수시 웅천동에는 장군의 어머니가 내려와 머물렀던 고택도 있다.

이순신대교는 임란 당시 노량해전이 펼쳐진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 사이에 있는 대교다. 왜적과 7년 전투를 이끈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남도 곳곳에 남아 있는 이순신의 흔적과 충혼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2장에는 방촌 황희 이야기 외에도 서로 다른 운명으로 살다간 최고 여성예술가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등장한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역사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두 범상치 않은,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다.

마지막 3장은 폐왕이 됐던 왕들의 사연이 펼쳐진다.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단종과 연산군, 광해군의 유배길 이야기가 이어진다. 특히 일본 자객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한 명성황후 민씨의 삶은 먹먹함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무엇보다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글로세움·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잠자는 추억들

파트릭 모디아노 지음, 김화영 옮김

201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파트릭 모디아노는 생의 근원을 신비한 언어로 탐색하는 작가다. 18세부터 글쓰기를 시작해 1968년 소설 '에투알광장'으로 데뷔해 로제 니미에 상, 페네옹 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1978년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프랑스 권위의 공쿠르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폴모랑 문학 대상을 받았다.

모디아노가 노벨상 수상 이후 첫 작품 '잠자는 추억들'을 펴냈다. 청년시절 스쳐가듯 만난 사람들과 그 시절의 바스라지는 기억을 풀어내는 자전적 소설이다. 작은 퍼즐을 맞추듯 뇌리를 스쳐 가는 단편적인 기억을 꿰맞춰가는 형식의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치밀하다.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는 "잊기 위해 글을 쓰는 작가 모디아노 소설의 미덕으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평한다. 가장 모디아노의 작품 특징을 적확하게 지적한 표현으로, 이는 독자가 화자를 따라가며 수수께끼 같은 과거를 추적한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한다.

화자는 14세 무렵 기숙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휴일이면 혼자 거리를 배회하다. 가짜 러시아인 신분증을 소지한 아버지와 연극배우인 어머니는 집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화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혼자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단 한번 본 적 없는 또래의 소녀를 만나기 위해 그 소녀가 사는 건물 앞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한다. 만남과 연관된 기억은 청소년기로 이어진다. 기숙학교를 나와 어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난다. 이렇듯 화자의 기억은 17세, 19세로 건너뛰며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억의 퍼즐을 맞추어가다 불현 듯 수면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과 마주치게 된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에리히 프롬 지음, 장혜경 옮김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사람, 바로 에리히 프롬(1900~1980)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소외당하는 이유를 밝히고 인간 내면의 해방과 사회 변혁을 추구했다.

이번에 출간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는 작가의 미발표 작품 모음집이다.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 이사이며 에리히 프롬의 마지막 8년을 함께한 조교가 엮었다. 사실 에리히 프롬 하면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 이상 판매된 현대의 고전 '사랑의 기술'이 떠오른다. 이번 책은 관계의 사랑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랑의 핵심인 '삶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에리히 프롬은 물질세계와 공허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강조한다. 고도로 자본화된 사회는 인간에게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로 인해 지성과 감성을 분리한 나머지 통합된 인격을 가꾸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에리히 프롬은 칼뱅과 칸트, 베버, 프로이트,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낸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프로이트의 나르시즘 이론을 비판한다. 자기 자신도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기에 자기애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일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무엇보다 그는 소비하는 인간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의 귀환을 주창한다. 최대 소비에서 최적 소비로 이행해야 하며 그것의 바탕은 생명, 생산성, 개인주의 등 인문주의적 가치라는 것이다.

〈김영사·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회적 농부

정기석 지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농민은 전체 경제 인구의 2% 정도로 적지만 국가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식량 주권과 농업을 지키는 '공익 농부'라고 일컬어진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 농부의 삶과 생활을 함께 돌본다. 농부가 당당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농민들은 농촌의 고령화와 마을, 지역공동체의 붕괴,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환경,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며 불안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 내몰려 있다.

이 같은 우리 농촌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사회적 해법을 연구하며 마을연구소를 이끌어온 정기석 소장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농업연수단' 일원으로 방문해 그곳에서 농업현실과 농부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대안을 찾기 위해 기록했다.

그가 펴낸 '사회적 농부'는 유럽에서 '모두의 농업'을 일구며 '모두의 농부'로 사는 사회적 농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과 농촌사회를 통해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솔하게 들여다 본다. 책 속에는 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만난 농부들과 농민협동조합, 농촌마을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작가는 여는 말에서 "한국 농부들은 결코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비록 도시 월급쟁이가 되더라도 도시로 자식들을 내몬다. 그게 농부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만으로 살 수는 없을까. 독일 농업 현장을 보면서 실마리를 찾고 가능한 대안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1만7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